□초 록 4□

성대 점막하 출혈에 관한 연구

안철민*, 정덕희, 한규철
대진의료원 분당제생병원 이비인후과, 음성언어연구실

배경 : 치유 과정에서 성대점막에 반흔을 형성하여 영구히 음성변화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성대 점막하 출혈은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되는 질환이지만, 이것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많지가 않았다.

목적 : 저자들은 성대 저막하 출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인과 이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최근 1년간 음성 변화를 주소로 본 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환자 중, 성대 저막하 출혈이 확인된 환자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환자들에게 음성 변화가 생긴 시점에서의 신체상태와 음성변화가 올만한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성습관이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내용을 설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이학적 검사는 성대에서 출혈이 관찰되는 위치, 동반된 성대 질환, 다른 신체 질환 등을 확인하였다.

결과 : 성대 점막하 출혈이 올 수 있는 직접 원인으로는 헛기침이 5례, 과도한 음성사용이 4례, 경부 충격이 2례, 성대 수술(갑상연골성형술) 2례, 심한 기침 1례, 과도한 노래부르기가 1례였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질환으로는 역류성 후두염이 6례, 생리(menstruation)이 4례, 상후두염이 1례, 원인 불명이 4례였다. 동반된 성대 질환으로는 성대결절이 5례, 성대결절과 혈관확장증이 동반된 것이 2례, 성대용종 4례, 레인케 부종 1례, 성대구증이 2례였다. 역류성 후두염이 있던 경우에서는 직접 원인이 모두 헛기침이었고, 과기능성 음성 질환인 결절, 용종이 동반되어 있었으며, 전 례에서 음성 사용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생리 중에 음성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서도 과도한 음성 사용이 주요한 원인이었고, 과기능성 음성 질환인 결절과 용종이 주로 동반되었다. 전 례가 20-30대의 젊은 여성으로 말을 많이 해야하는 전문직업인 들이었다.

결론 : 성대 점막하 출혈은 과도한 음성 사용이나 잘못된 성대 사용이 중요한 직접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역류성 후두염이 있거나, 젊은 여성에서 생리현상이 있는 기간에 특히 발생할 확률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